

120501 원로회의 인사말

종단의 대소사를 가리지 않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로의원 대중 사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3대 집행부는 이제 2년 6개월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소기의 성과도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단과 종도의 숙원 사업이었던 승가복지 사업이 마침내 시행되어 수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특별교구를 뉴욕에 설립하여 최근에는 교구를 통하여 말사를 등록하는 등, 종단 최초의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할교구의 공찰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주지인사고과 제도는 사찰의 발전적 측면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기에, 긍정적 평가속에서 교구본사로 확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처분금을 총무원과 교구본사가 적립하여 향후 전략적 포교도량을 설립하거나 종단이나 교구본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다 큰 틀에서 투명한 재정운용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초과일 연등축제가 연등회라는 명칭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등재되는 뜻 깊은 일도 있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시대에 맞는 승가교육의 대대적 개선과 신도조직의 체계화, 현시대에 맞는 의식의 한글화 시행과 더불어 미주와 유럽을 방문하여 한국불교를 알리는 세계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요한 사업들은 그동안 종단의 숙원 사업이었고 종도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논제들이었으나, 지난 2년여 동안 논의의 틀을 던지고 일어나 현장에서 실제 시행되는 성취를 이

루었습니다. 이는 종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긍정의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한 자성과 쇄신 결사는 원로의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부터 구체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 추대식을 맞아 1000일 정진을 시작하였고, 매달 소외계층을 찾아 종단의 이름으로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주요한 종단의 성과가 자성과 쇄신 결사의 구체적 시행과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 그 근본적인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일인 내일은 논산훈련소에서 군법당인 호국연무사의 낙성식을 봉행합니다. 이 또한 군불교를 넘어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종단 예산 규모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순수 기부에 의존하여 설립한 군법당이기에 더 큰 의미로 기억될 불사입니다. 원로스님들을 포함하여 의미있는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전체 공사대금 120여원 중 2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단과 군종교구는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로의원 대종사께서도 언제나처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완공된 후에는 호국연무사를 찾아 군장병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수 엑스포 기간 중에 종단과 호남권 교구의 각별한 노력으로 WFB 세계불교도 대회를 오는 6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불교도의 만남을 넘어 한국불교의 전통과 우리만이 가진 빼어난 수행법과 문화를 세계 불교인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익한 대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원로스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무루 동참해 주셔서 그동안의 호남지역 원로스님과 교구 본사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 어려움과 종단 내외의 부족한 환경속에서 유래없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원로스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